

우리는 행복할꺼야!

만약 용감히 나누고자 한다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5,3)



목표

물질적, 영신적 재산과 재량이 지역별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순환하는 재산의 공유를 태어나게 한다.



어땠나요?

처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체험과 직접 겪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환영을 받고 어색함 없이 마음편히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했던 모임때 결정했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좋다.



모임을 여는 활동

협동심을 키우는 놀이이자 문제풀이
“ARRAFFA” (잡기놀이)

소요시간: 30 분에서 1시간

준비물: 넓은 테이블, 충분한 숫자의 조그만 물건 (클립, 단추, 콩), 게임 규칙이 적힌 포스터

전개방법: 테이블 주위로 최대 10명까지 게임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곁에서 지켜본다. 테이블 위에는 22개의 클립이 놓여진다. 게임 규칙을 읽는다. 게임 시작하는 표시와 함께 참가자들은 클립을 잡아 가져간다. 테이블에 남게되는 클립을 두배로 늘린다. 24개의 클립에 가지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게임은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있지만 매번 조금씩 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가자 스스로가 깨우칠 때까지 계속 되풀이 이어진다.

제안: 이 게임은 반복될 수 있는데 모든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뺏고싶은 욕구를 충분히 잃어버릴 때에만 게임의 결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중엔 참가자들이 생각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며 참가자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발표: 게임을 끝나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세계적 자연 원천의 불균형, 상호의존성과 상호문화의 주제를 다룬다. 이 토론을 통해 자기주의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중심의 시각을 극복하는 공유의 개념에 도달해야 한다.

책 “L'economia giocata”에서, M. Morozzi, A. Valer, ed EMI 2001



깊이 있게

하느님께 자리를 더 내어주십시오



키아라 루빅,
로까디파파,
1975년 6월 20일,
3전 대회,
산상수훈

세상은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부자에겐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살지,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지 궁리하고, 다른 이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기를 열망합니다. 허용심이 자라나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점점 더 둔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음에서 묘사한 부자 청년처럼 될 확률이 커집니다. 예수님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불리워졌지만 자신의 재산에 애착이 큰 탓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가난한 사람**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희망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전능한 친구와 함께 하기에 더이상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부유하고 평온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성인들과 오늘날 많은 젠들도, 하느님을 지니기 위해선 가난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가 되어야 함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안락한 생활과 부유로 부터 애착을 끊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씨시의 젊은 프란시스코가 이런 예중 하나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버지의 부유한 재산, 그리고 친구들과 돈을 낭비하며

흥청거리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 주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그의 재산이자 넘치는 기쁨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나의 하느님, 나의 모든 것!”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재산으로도 그의 가난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어 주었을 때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사이엔 덜 가진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필요한 것을 지니게 되며 바로 하늘의 왕국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http://assistentigen3.focolare.org>에서 비디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행동을 할꺼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용기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나누자

끼아라 루빅
로까디파파,
1968년 6월 25일,
무지개 혁명



저는 젠들 여러분이 20세기의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상을 실현시킬 능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다가 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재산의 공유는 필수는 아니지만 모두가 몸에 배어 실천

하던 첫 공동체의 고유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젠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소유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분명 젠들 중 누군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만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 빠짐없이 다 공유하기 위해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수천명의 젠들이 이렇게 실천한다면 어떤 혁명을 가져올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너희 또래들은 필요한 것을 사고 놀기 위해 각자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가 첫 크리스찬들처럼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자기 돈으로

자본을 만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첫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 건데, 나이 많은 세대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듯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한 작은 숫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현대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여러분 세대에 말로 가장 순수한 이상에 걸맞는 삶에 불리움을 받았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할꺼야!
행복이 우리가 나눌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④ 제안한 활동을 통해 3젠들은 진복팔단에 대해 흥미를 더 키웠습니까?
- ④ 3젠들 사이에서 특별히 마음의 가난을 살기가 힘든 분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 ④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3젠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모임때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지탱하는데 집중합시다.
- ④ 모임에서 다룬 주제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모임때 다루어야 할 부족한 점이 남아있습니까?
- ④ 모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번 모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염두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